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7년 만에 개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범죄예방정책국도 친선경기 참여...법무가족 화합의 장 마련
- 정성호 “교정공무원의 단결과 자긍심 높여 국민안전을 위한 교정역량 강화”

법무부는 2026. 6. 12.(금)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2019년 제54회 대회를 끝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지 7년 만에 재개되었으며, 정성호 법무부장관, 이홍연 교정본부장, 전국 교정기관 선수단과 응원단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개요

- 1949년 첫 시작 이래 77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교정본부 최대 규모 체육대회
- 목적 : 무도 훈련을 통해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배양하고 조직 내 화합을 도모
- 대회 종목 : 검도, 유도, 태권도
- 참가 규모 : 전국 35개 교정기관, 47개 팀, 선수 370여 명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는 1949년 시작된 교정본부 최대 규모의 전통 행사로, 무도 훈련을 통해 교정공무원의 체력과 정신력을 기르고 조직 내 화합과 단결을 다지는 법무부의 대표적인 무도대회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교정본부뿐만 아니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범죄예방정책국 무도 공무원 및 실무관 등도 참여해 법무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과 공방 업체가 참여하는 푸드트럭, 플리마켓, 이벤트 카페 등을 운영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행사로 의미를 더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회사에서 “교정공무원은 가장 어려운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지키고 있는 숨은 주역”이라며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통해 교정공무원의 단결과 자긍심을 높이고, 위기 상황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2026년은 교정혁신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며 “과밀수용 해소, 교정 공무원 처우와 복지 개선, 치료·재활 중심의 교정 정책 혁신을 통해 재범을 줄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경기는 교정본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었으며, 교정본부 직원들이 직접 해설과 진행을 맡아 현장감 있는 중계로 큰 호응을 얻었다.

담당 부서	교정본부 교정대외협력단	책임자	단 장	승영근	(02-2110-4579)
		담당자	교정관	정진영	(02-2110-4580)

